

한국의 초기 전도부인들

** 이것은 원래 한인여선교회 소식지인 <여선교회 소식> 2006년 9월호 - 2006년 12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김명래 전국연합회 총무가 쓴 글이다.

미국 여선교회의 선교사들은 한국의 여성 선교를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는 목표아래 전도부인들을 양성하였다. 당시 전도부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행한 삶을 살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여선교사들은 한국여성들에게 한글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가르쳐서 전도부인으로 양육하였다.

교육을 받은 전도부인들은 지역사회로 흩어져서 기독교를 불신하던 한국여성들에게 전도를 하여 교회로 인도하면 여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쳤다. 전도부인의 사역은 평범한 한국 여성들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한국에 많은 감리교회가 세워지는데 초석이 되었다. 다음에서는 전도부인들이 평신도로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역사에 어떻게 공헌하였는지 몇몇 여성들을 통해 살펴보고 또한 이들의 선교활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지역의 첫 전도부인 전삼덕

선교사 홀(Hall) 부부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전해받고 평양지역의 첫 전도부인이 된 전삼덕은 양반여성으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6백여명을 전도하여 교인이 되게 하였다. 그녀는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자주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고백은 초기 여성 선교에서 전도부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인천선교에 불을 지핀 전도부인 백헬렌

백헬렌은 남편의 장례식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시집을 탈출하여 메리 스크랜튼을 만나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1893년 전도부인으로 임명되어 인천에 파송되자 방물 장사로 꾸며 물건을 파는 것처럼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며 여성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당시 인천지역은 선교사의 입국 통로로 선교사들에겐 호의적 이었으나 기독교 전파가 저조하여 답보상태에 빠져있었는데 백헬렌의 전도로 인천 지역에 여성교인들이 생기게 되었고 인천선교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서북지방에 복음을 확산시킨 전도부인들

전도부인 김세지는 선교사 홀 부부의 전도로 교인이 되었고 스스로 전도부인이 되어 평양과 서북지역을 순회하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보호여회', '과부회'라는 여선교회를 조직하여 애국활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김서커스는 섬기던 33종류의 신을 버리고 전도부인이 되어

평양부터 황해도까지 2천 9백리의 길을 걸어다니며 전도를 하여 평양에 교회들이 설립되는데 기반을 마련하였다.

십일조 부인들 (Tithers)

1909년 에스티(E. M. Estey) 여선교사가 영변지방 전도부인들과 여성교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십일조 부인'들을 양육하였다. 자질 있는 여성들을 특별 훈련시킨 후 각자 시간의 십분의 일(일년 52중 5주간)을 전도사역에 바치도록 하였는데 훈련 - 파송 - 보고의 조직체계를 가졌다. 십일조 부인들은 인력이 부족했던 초기 선교상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경 부인 (Bible Women)

전도부인들은 당시 성경부인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과 기독교서적을 팔았다. 당시 한국 여성들의 많은 수가 문맹이었는데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도록 하여 한글을 보급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장한 배경에는 전도부인 들의 사역이 밑거름이 되어있다. 평신도 여성들이 전도부인이 되어 일생을 이룸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하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려져 있는 전도부인의 역사는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도전과 선교의 비전을 준다. 다음에서는 전도부인들의 선교활동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전도부인 선교활동이 사회에 끼친 영향

남감리회 여선교회는 1913년 전도부인과 여성 교인 11명이 원산 성경학원에서 모여 처음 시작되었는데, 목적은 원산지방의 믿지 않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부인을 파송하기 위해서였다.

전도부인들은 자신의 월급의 5%를 헌금하여 여선교회를 조직하는 기금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서울, 개성, 춘천, 철원 등지에 여선교회가 조직되었고 1920년에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주된 선교사업은 두 가지로, 시베리아와 일본에 전도부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한 것과 국내의 미개척 지방에 전도부인을 파송하고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었다. 해외선교는 당시 목회자들도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도부인들이 결단해 이루어내는 용기와 열정을 보여주었다.

교회를 통해서 여성해방에 기여

전도부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고 인격적인 삶을 사는 해방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유교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선교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회가 되는대로 전국 도시와 농촌을 다니며 순회전도를 하였는데 산간벽지 소외된 지역에도

들어가 해방의 복음을 전하자 여성들로부터 환영받았다. 전도부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다가 속회를 조직하고 후에 교회가 설립되도록 도왔는데 온갖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위한 확고한 믿음의 혼련이라는 생각으로 선교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 결과 미개척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고, 여성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져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가중되고, 전도부인들의 개별 접촉 방식의 전도 활동의 한계로 여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여자관”을 설립했다. 전도부인들은 이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경회 개최 등 복음 활동과 문맹여성을 위한 야학, 절제운동 및 금주금연 운동, 농촌계몽운동, 외국어 교육 및 기술교육 등 사회교육 활동을 벌였다.

여성들을 조직, 사회운동에도 기여

전도부인들의 지도력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활동에서 발휘되었다. 사경회에서 그리고 야학교사로서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도왔고, 여성들을 조직하여 사회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개체교회 여성교회를 조직하여 자발적 선교를 펼쳐나갔으며, 민족독립을 위한 구국운동 지도자가 되어 여성단체들을 설립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전체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미래에 소망이 없던 차별 받던 평신도 여성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부인이 되고, 여성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교회를 설립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것을 네 번에 걸쳐 살펴보았다. 전도부인들이 이처럼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교회가 전국연합회를 조직, 연대하여 선교를 지원, 추진해 나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인여성교회가 신앙의 선배인 전도부인들의 선교의 발자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의 한인여성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도부인들의 헌신적 선교의 결과로 보며, 2005년부터 전국의 각 연합회가 동참해온 전도부인 사역은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열매로 자란 한인여성교회 회원들을, 복음을 모른 채 무지와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아시아 여성들을 위해 전도부인 선교를 하라고 부르고 계신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한인여성교회가 힘을 모아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청소년 선교에 계속 동참해 이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란다.□